

주공, 아파트 또 짓는다

광주·전남 미분양 1만2천가구 불구 2,899가구 연내 착공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2천899가구의 아파트를 또 짓는다.

광주 미분양 물량이 1만체가 넘고 민간 주택업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사실상 주택 공급을 중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공은 주택 수급 불균형을 막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서 주택 공급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분부는 18일 "2009년 사업계획 설명회"를 갖고 "광주·전남 지역에 국민임대 2천102가구, 분양 797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무안 성내지구 493가구를 6월 착공하는 것을 비롯 ▲광주 선운 1지구 8-1, 2BL 1천147가구(11월 착공) ▲영암 용양 2

지구 462가구(11월 착공) 등이다. 분양주택은 광주 학 2지구에 797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주공은 또 '보급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뉴플러스, NEW+'라는 이름으로 ▲광주 효천 1지구 B-1BL에 820가구를 건설, 분양기로 하고 오는 10월 국토부 사업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용산지구 2BL 380가구(분양)는 7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A2BL 1천120가구(국민임대), B4BL 600가구(분양) 6월 ▲전남 주거지역 400가구는 10월에 각각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급자리주택은 기존의 국민임대, 10년임대, 장기 전세 등의 임대주택과 공공 부분의 전용면적 85㎡이하의 소형분양 주택을 합친 개념으로, '보급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률적 국민 임대에서 벗어

나 지역별·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주공은 이의 광주 지원지구 1BL의 경우 오는 12월 5년 임대(300가구)와 분양(582가구) 주택 건설을 목표로 사업 승인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올해 광주·전남지역에 새로 공급하는 물량도 11개 지구에 총 7천842가구에 이른다.

고재택 주공 광주전남본부장은 "주공의 광주 미분양 물량 1천570가구에 들어가는 한달 금융 이자만 10억원에 이르고 관리금만 5천만원에 달하는 등 미분양에 묶인 돈이 2천억원에 이른다"면서 "공기업인 만큼 미분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많은 건설자재납품회사의 일감 확보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미 신상품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장미 연구사업단 육성 품종 평가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차 '쏘울'에 세계가 반했다

한국 첫 '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기아차의 크로스오버 차량인 '쏘울(SOUL)'이 국내 자동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을 받았다.



기아차는 18일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이 '2009 레드닷 디자인상(2009 red dot Design Award)' 자동차 제품 부문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1955년부터 시작된 레드닷 디자인상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m Westfalen)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공모전으로, iF 디자인상 및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올해 레드닷 디자인상 제품 디자인 부문에는 49개국 17개 분야 3천230개의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쏘울은 유선형 일색인 차량 디자인에서 벗어나 직선의 단순화를 구현한 직선형을 띠고 있으며 국내최초로 적용된 블랙 A필라 아이টে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파트 시장 고객 쟁탈전

민간업체 분양가격 세일

주공도 할인 등 특별판매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치열한 '고객 쟁탈전'이 시작됐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분부는 18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천 3단지 미분양 물량 485가구에 대한 특별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75㎡(30평형·176가구)의 경우 분양가(1억5천680만원)의 50% 수준인 7천680만원(계약금 1천600만원 포함)을 낸 뒤 나머지는 입주 2년 뒤부터 3차례에

걸쳐 나눠내도록 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450만원의 이자 비용을 덜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용면적 84㎡(34평형·309가구)도 1억7천340만원의 분양가의 48%인 8천34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2년 뒤부터 분할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공기업인 주공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하면서 지역 부동산업계는 민간 건설업체와 주공의 '미분

양 해소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가 인하, 경품 제공, 잔금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내놓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공(先攻)을 펼쳤다면, 이번엔 주공이 민간 건설사와 유사한 할인 혜택 등을 내놓고 '반격'에 나선 셈이라는 것이다.

한편, 주공은 오는 24일 광주 진월 주택 홍보관에서 동천 3단지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동·북구 '남도음식' 인재 양성

광주시 동구와 북구 등 자치단체들이 떡과 남도음식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는 18일 "지역민들이 향토 음식을 테마로 창업까지 할 수 있게 올해 '남도(南道)식(食)문화 1인 기업가 창업 리더 육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이를 위해 전남대 평생교육원과 서강정보대학,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대성직업전문학교 등 7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창업 리더 및 참가자 창업, 소평물 운영, 여성 창

업·취업 과정 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30~60대 여성이며 다음달부터 희망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6개월 동안 특성화 교육을 할 예정이다.

동구도 '떡 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따라 다음달 중저소득 세대주 및 미취업여성 중에서 수강생 160여명을 모집해 전통 떡 산업관련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동구와 북구는 이와 관련 교육과확부로부터 각각 2억여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이종행·김형호 기자 golee@

김성모 한국스치로폴 대표 대통령상

이장환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 장관상

제 36회 상공의날 표창

18일 제36회 상공의날을 맞아 김성모 한국스치로폴 대표가 대통령상을, 이장환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가 지식경제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최희일 엘지이노텍 차장은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을 받았다.

이장환 광주신세계백화점 대표는 이마트 오픈으로 1천여명



<김성모 대표> <이장환 대표>

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062-227-9940
총장점: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062-227-9970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주택보급 정부무상 보조지원금 60% 선착순 신청접수!!

정부무상국비보조지원금 60% / 과세부담금 40%에서 최대

태양광주택발전사업국

문의전화: 033-227-3035 / 신청전화: 010-2852-5789, 010-6038-9813

무상 최고 187만원 지원
에너지 최고 83% 절감 냉·난방시스템

구입시 특정한 혜택
에너지 절약비용으로 할부금을 내고도 돈이 남습니다.
(대우 일렉 가성공조시스템 한정)

DC 대우 일렉 가성공조시스템 062) 252-2900